

관상용 토마토 '톰하트'

최 학 순 원예작물부 채소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최근 들어 토마토를 교육용 소재로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재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품종들은 대부분 줄기가 무한정으로 자라면서 열매가 달리는 무한형 품종으로 가정이나 학교 교실에서 재배하기에는 관리상 어려움이 많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좀 더 작고 쉽게 누구나 재배할 수 있도록 초형을 유한형의 왜성으로 개량하고 관상용 가치도 있으면서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마토를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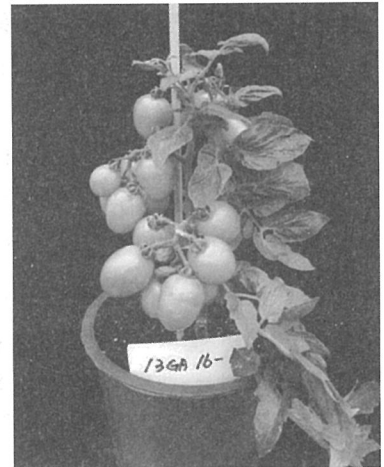
● 토마토 신품종 '톰하트' 형태적 특성

토마토 신품종 '톰하트'는 생장형이 유한형으로 자엽색은 녹색, 하배축색은 자색이다. 꽃색은 노란색이고 화서의 형태는 단순화방이다. 주축과 연결된 소엽의 자세는 수평이며, 전체적인 앞은 아래로 처지는 형태이다. 과병의 길이는 약간 짧으며 분리층이 있다. 과실의 형태는 길쭉하고 미숙과실의 색은 약간 밝은 녹색이다. 어깨색은 짙은 녹색으로 넓게 분포하고 성숙 과실의 색은 황적색이다. '톰하트'의 초장은 35~40cm정도이며 잎의 길이는 20~30cm, 잎의 너비는 20~25cm이며 소화경의 길이는 1cm 정도이다. 과중은 30~40g, 과장은 40~50mm, 과폭은 35~40mm이다. 당도는 3~4°Brix, 과피의 두께는 5~5.5mm, 심실수는 2개이다. 화방은 3~4개 출현하며 화방당 착과수는 4~5개, 한 주당 전체 착과수는 15~20개이다.

● 관상용과 식용 모두 가능하며 포트 재배에 좋아

'톰하트'는 관상용이면서 식용도 가능한 토마토로 초장이 작고 콤팩트하기 때문에 포트 재배가 적당하다. 포트가 너무 작으면 착과수가 적고 과실이 작아지기 때문에 포트 직경 25cm가 적당하다. 집안에서 재배할 경우에는 꽃이 피고 과실이 착과할 때는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하고 재배중의 온도는 20~25℃가 적당하다. 생식으로 먹기에는 당도가 낮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 요리를 통해 이용하면 좋다.④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2014년 6월호)



▶ 미숙과 모습



▶ 완숙과 모습